

# 독일의 농민후계자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제도



황 석 중 박사  
전 축산연구소

## 1. 농업 직업교육

- ⇒ 농업 개황
- ⇒ 이원적 직업교육제도(Dual System)
- ⇒ 농업 직업학교 졸업 농업인
- ⇒ 농업전문학교 졸업 농업경영인
- ⇒ 마이스터 및 기술사
- ⇒ 대학교육

### 가. 독일의 농업구조

	농가호수	농가규모(ha)	농업용지(백만 ha)
구 서독지역	328,000	35	11.4
구 동독지역	25,000	198	5.6
독일전체	353,000	48	17.0

### 나. 가축사육 농가

	농가호수(호)	가축두수(백만 두)
착유우	110,200	4.2
비육돈	66,500	10.7
모돈	33,600	2.5
산란계	77,300	36.2
합계	287,600	

### 다. 대규모 가축사육농가(%)

- 서독(헝센주), 동독(삭센안할트주)

호당규모		착유우 (100두 이상)	비육돈 (1,000두 이상)	모돈 (100두 이상)
서독	농가	3.1	0.5	7.5
	두수	13.1	13.1	47.5
동독	농가	63.3	9.9	34.1
	두수	88.6	82.6	98.3
독일	농가	4.4	2.7	22.6
	두수	25.6	28.5	72.4

### 라. 농업노동력

- ⇒ 2006년도 농업종사자 1.24 백만명
- ⇒ 농업종사자의 61%가 자가 노동력
- ⇒ 총직업종사자 중 농업의 비율 2.4%
  - 불란서 4.0%
  - 폴란드 17.6%
  - 유럽연합 5.0%
- 국민총생산의 농업 비중 1.1%(유럽연합 1.8%)

### 마. 이원적 직업교육체계(Dualsystem)

- ⇒ 농업직업학교 3년 과정의 이원 교육체계(학교 = 이론교육) + (현장농가 : 실무교육)
- 1학년 : 학교 수업 + 주 1일 농가현장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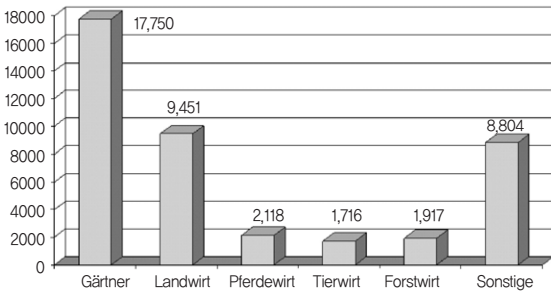
- 2~3학년 : 학교 1일/주 + 현장농가실습
- 현장실습농가는 중소규모의 농가가 주축이며 반드시 마이스터 농가임
- 부모가 마이스터라도 다른 농장에서 실습함.
- 실습농가에서 숙식하며 전일 교육
- 청소년의 약 70%가 이원적 체계의 직업교육을 받음.

**바. 범 농가적 교육기관**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 ⇒ 현재 독일내에 ÜBS 700개소
- ⇒ 약 90,000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작업장
- ⇒ 실습생은 반드시 재학 중 5~10주간 다양한 분야의 범 농가적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여야함.

**사. 농업직업학교 학생 수(2006년도 41,75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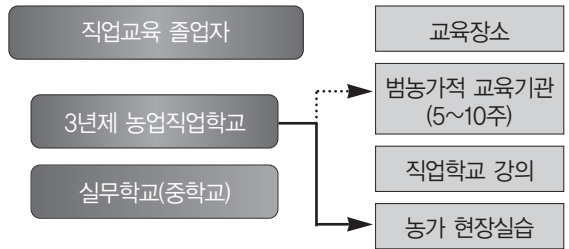


**아. 기타 농업분야 직업교육**

- ⇒ 농촌가정경영인(100% 여성)
- ⇒ 농업 및 유가공 시험실 분석원(524명 중 83% 여성)
- ⇒ 유가공전문가(845명)
- ⇒ 포도주전문가(858명)
- ⇒ 양어전문가(328명)
- ⇒ 수렵전문가(54명)

⇒ 농업분야 서비스업종전문가(2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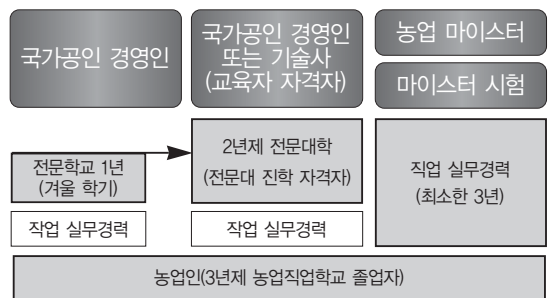
**자. 농업인 자격**



**차. 현장실습농가의 구비조건**

- ⇒ 현장실습 적격농가로 공인된 농가
- ⇒ 마이스터(전문기술, 교육기술, 인성)
- ⇒ 교육지도 보고서(Berichtsheft)
- ⇒ 교육지도계획서(Ausbildungsplan)
- ⇒ 현장실습농가로서의 협조성
- ⇒ 실습생 급여(현재 490~600 유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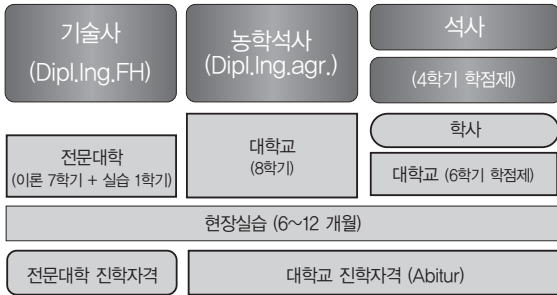
**카. 계속 추가교육(Fortbildung)**



**타. 마이스터 시험의 구비조건**

- ⇒ 작업계획서와 실무기술
- ⇒ 직업 및 작업상의 교육지도 능력(실무평가)
- ⇒ 농장경영 능력
- ⇒ 마이스터 논문 및 타 농가에서의 시험

**파. 농업계 대학교육**



**2. 독일의 농업 정책**

⇒ 정책의 근거

- 일정한 면적에 최소한의 인구밀도를 유지
  - 지역 공동화 방지 - 전국토의 인구분산
  - 농촌을 통한 고유의 전통 유지 계승
  - 농업 생산기반 보존
  - 농민에 의한 국토 문화 경관 관리 보존
- 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됨

**가. 농업은 국민과 후손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

-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보장한다.
- 농업은 모든 국민산업의 기본(녹색분야)이 된다.
-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인플레이션 억제) 시켜준다.
- 농업은 아름다운 문화경관을 보전한다.
-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시켜 준다 (전통계승, 인재양성).
-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루어 생존기반인 공기, 물, 토양을 보존한다.
- 농업은 국민의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 농업은 값진 원료자원을 생산한다.
-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NAWARO-비오에너지)

○ 농업은 보람 있는 직업으로서의 많은 직종을 제공한다.

**나. 농업정책의 4대 기본목표**

-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풍요로운 생활의 질을 향유하며 발전에 동참한다.
- 국민에게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적정한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국제 농업교역 및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농업을 통하여 자연 및 농촌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상을 보호한다.

**다. 지원 정책의 종류**

-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균형보조
  - 고산지, 경사지, 사회 문화적 소외 지역
- 농지관리 면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농민 후계자 투자 지원
- MEKA, KULAP 등 문화경관관리 정책
- 에너지, 공업원료작물 재배 지원
-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민박, 직판)

**3. 농업투자보조프로그램**

**(Agrarinvestitionsfoerderprogramm, AFP)**

⇒ 지원대상(농업전문직업교육을 받은 농업경영인)

- 농업경영인 및 영농법인에 대한 축사 건축비
- 생존기반 마련 농가의 농가, 토지 구입자금
- 전업, 겸업농가 기계구입, 환경농업 전환비
- 젊은 영농 후계자에 대한 지원(1.~3. 포함)
- 농외소득원(농가민박, 직판) 사업지원

⇒ 자격

- 40세 이하
- 농업전문직업학교 졸업

- 농민자격증 소지자
- ⇒ 지원내용
  - 이자 4% 감면(최소 0.75% 이상)
  - 10~20년 상환
  - 15,000 유로화 특별 추가보조

#### 4. 농가에서의 휴가(Urlaub auf dem Bauernhof)

- ⇒ 농촌만이 갖고 있는 고향의 정취
- ⇒ 어린이들의 체험을 통한 자연교육
- ⇒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휴양
- ⇒ 전통적인 지역 특산 식품
- ⇒ 단골손님의 친척 같은 농가분위기

##### 가. 휴가 손님의 바람에 맞는 농가 휴가

- ⇒ 자연과 조화된 문화경관
- ⇒ 농촌다움
- ⇒ 쾌적한 휴양처
- ⇒ 가축과 농사일 돕기
- ⇒ 농촌의 전통 축제
- ⇒ 친절한 농가 분위기
- ⇒ 적당히 편안한 시설
- ⇒ 질 좋고 신선한 음식

##### 나. 농가의 시설 구비조건

건물의 전체적 인상	잘 가꾸진 정원	현대식 주거시설
잘 정비된 농가 진입로	발코니 또는 옥외 휴식 공간	침실, 욕실, 거실, 주방
주차 공간	민박 별도의 출입구	옷장, 세탁기, 놀이기구 등

##### 다. 농가의 준비 사항들

- ⇒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보험가입, 구급약
- ⇒ 노인, 신체장애자를 위한 배려



▲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에서 황석중 박사의 사례발표

- ⇒ 인근지역의 관광 및 볼거리 정보책자
- ⇒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 ⇒ 우천 시 소일거리, 대체 프로그램
-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분담, 친절

##### 라. 민박 농가에 대한 제약조건

- ⇒ 침대 수 제한 (농가당 15개)
- ⇒ 점심, 저녁식사 영업적 제공 불허
- ⇒ 숙박계 기록의 의무
- ⇒ 농가 당 민박수입 제한(오스트리아)
-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 분담
- ⇒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보험

##### 마. 농축산물 농가 가공 직판

- ⇒ 생산물 가공 및 직판
- ⇒ 우유 생유 또는 치즈, 요구르트 농가 가공, 직판 허가
- ⇒ 육류 부분육, 햄, 소시지 농가 가공 직판 과일
- ⇒ 과일 주스, 증류주 양조 할당량 ㉞